

5등급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올해가 마지막 지원 종료 앞두고 막판 신청 몰리나

제주시 예산 감소 속 신청 급증... 접수기간 단축 서귀포시는 현재 예산 여유... 사업기간 연장 검토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면서 막판 지원 신청이 몰리고 있다. 내년부터 대상 차량에 대한 폐차 및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이 사라지는 데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행 과태료 처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15일 에너지기후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은 유지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

는 등록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면서 제주시 등록차량들의 지원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당초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차량 지원 접수가 몰리면서 오는 19일로 접수기간을 단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501대가 조기폐차 신청을 완료했다”며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소한 데다

올해까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신청자들이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30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35억4800만원(1524대)보다 줄었다.

반면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오는 6월말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따른 접수기간을 운영 중으로, 15일 기준 722대가 신청한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신청 접수한 차량은 1003대로 확인되며 제주시와는 대조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청 대상 등록차량은 9000대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예산(올해 대상 차량 922대·예산 14억8500만원)이 남아 있어 사

업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추가(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은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의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RISE 2차년도 사업 본격화 2029년까지 2998억원 투입 지역혁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RISE센터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제주 앵커사업) 2차년도 대학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주 앵커사업 논의를 위한 '제3차 제주RISE 위원회'를 개최해 1차년도 주요 성과와 2차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했다.

제주 앵커사업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연계도시, 제주'를 핵심 목표로 제주대, 한라대, 관광대 등 도내 3개 대학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AI)·항공우주·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부터 연계·창업·정주 생태계 구축까지 5대 프로젝트와 9개 단위과제가 추진되며 올해에만 국비 522억원, 도비 104억원 등 총 627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 중 약 338억원을 3개 대학에 우선 배분하고 대학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24억6960만원 규모의 성과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 배정한다. 또한 향후 교육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배분할 방침이다.

오는 2029년까지는 누적 29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발맞춰 초광역 공영대학 고도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초광역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지역성장을 이끄는 핵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학생·인재 중심으로 사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했다.

이와 함께 연계·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개편과 지역 핵심 산업의 니즈 반영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지정과제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한다.

제주RISE위원회 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제주에 머물며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제주가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양파 수확 구슬땀 지난 13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양파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별빛누리공원, 우주과학 특별체험 이벤트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참여... 특강 등 다채

제주별빛누리공원이 오는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 우주환경센터 등을 초청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주과학 특별 체험 이벤트를 개최한다.

15일 제주별빛누리공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주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특별강연 및 증강현실(AR) 누리호 체험 ▷우주환경센터의 태양활동 감시 체험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의 다누리 만들기

체험 ▷제주스마트드론의 실내 소형 드론 비행 체험 ▷제주별빛누리공원의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썰렁지 체험 등이다.

특별체험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별빛누리공원 1~2층 실내 공간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4D 영상관과 전체투영실 관람은 유료로 운영된다.

특별강연은 행사 당일 오후 1시

별빛누리공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성민 홍보실장이 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 과정의 뒷이야기를 소개한다.

강연 참가자는 초등학교 이상 40명 선착순이다. 신청은 16일 오후 7시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누리집(https://www.jeju.go.kr/star/main.do)을 통해 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연말까지 '뮤직 복싱교실' 무료 운영

오는 19일 선착순 20명 모집 체력 향상·스트레스 해소 기대

제주시가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뮤직 복싱 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주부와 직장인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비롯해 근력 강화, 유산소 운동 등으로 구성됐다. 음

악에 맞춰 복싱 동작을 익히며 운동의 재미를 높이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복싱장에서 진행되며, 오후 7~9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 5회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제주평생교육다모아 누리집(https://damoa.jeju.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문의는 제주시 체육진흥과(전화 064-728-3277)로 문의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 부동산 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서귀포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부동산 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이며, 대상 중개업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

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업소 등록 및 고용인력 관리,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적정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이다.

백금탁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박사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정확한 청력검사 전문 보청기 상담

보청기 상담은 청각학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백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리기업'이며 '사용성의 주안점'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정심사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강동우 청각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박사

청각학 협력 청능사

선언 전문 청재 활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